

송원고, 교육청 조건 거부…내신 50% 선발 요청

학교측 30%서 50%로 완화…광주교육청 “수정 없다”

광주 송원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거부하면서 ‘제2의 문고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송원고는 지난 1일 오후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전형요강에는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추천 선발’을 담았다.

송원고는 조건부 승인이 나기 전에 제출했던 ‘내신 상위 30% 이내 선발’을, ‘내신 50% 이내’로 완화했다.

송원고는 “동일한 지역의 자사고 간 전형요강이 다르면 곤란하고, 성적 제한을 폐지할 경우 교육청이 우려하는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성적 제한을 고수했다. 학부모회도 학교측의 내신 50% 완화 방침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자사고 재지정 전제조건인 ‘성적 제한 폐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광주시교육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송원고가 제출한 전형요강을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과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부 승인했다”며 “성적 제한 폐지 방침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적 제한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전면

폐지하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형요강을 승인 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추후 송원고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송원고의 선택은 세가지다. 먼저,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적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사고는 유지되지만, 자사고의 강점이 사라지면서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게 문제다.

반대로, 교육청의 요구를 정면 거부할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는 물론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을 못할 수도 있다. 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또 하나는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대규모 전 학사태 등 현재 1, 2학년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2011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보문고에서 100명가량이 전학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송원고의 자사고 문제와 관련, 교육단체의 입장을 갈리고 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광주교육 환경의 특성은 사립 일반고의 교육력이 강해 자사고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며 “수월성·창의성 교육이 중심인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존치하면서 일반고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광주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은 광주전남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과 공동으로 5일 오후 3시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자사고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송원고는 광주시교육청이 개선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 광주공교육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송원고가 수용을 거부하면 광주시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즉각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일몰 13:09
해질 19:33 달질 00:05

비 피해 주의하세요

광주·전남 지역에 20~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25/28	보성	비	24/26
목포	비	24/27	순천	비	25/28
여수	비	25/27	영광	비	25/29
나주	비	25/29	진도	비	24/27
완도	비	24/27	전주	비	24/29
구례	비	24/28	군산	비	24/28
강진	비	24/27	남원	비	23/28
해남	비	24/27	흑산도	비	23/26
장성	비	25/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파고(m) 1.0~2.5	파고(m) 0.5~1.5
남해	파고(m) 2.0~3.0	파고(m) 1.0~2.0
남부	파고(m) 1.0~2.5	파고(m) 0.5~1.5
서부	파고(m) 2.0~4.0	파고(m)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05	00:01
	19:51	12:26
여수	01:39	07:51
	14:30	20:41

◇주간 날씨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	☀	☀	☀	☁	☁	☀
24/30	25/32	24/33	25/32	24/30	24/30	24/31

◇생활지수

식중독	56
운동	10
빨래	20

광주 학교 비정규직도 양극화

금란교실지도사 3292만원 최고…과학실무사 2017만원 최저

시교육청, 직종간 평균 연봉 비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종간 연봉 차이가 최대 120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교육청의 ‘2014년도 채용권 전환직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직종별 평균 급여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28개 직종간 평균 연봉 차이가 최대 1275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2012년 8월 채용권이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무원처럼 정년도 함께 보장됐다. 하지만, 급여가 낮은 상태에서 직종간 급여 차를 조정하지 못한 채 비슷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으면서 직종 간 연봉액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종은 금란교실지도사로 평균 연봉은 3292만원이다. 반면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과학실무사는 2017만원으로 두 직종간 연

급차이는 1275만원에 달했다.

금란교실지도사가 상시근무자이고

과학실무사가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간 급여 차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상시 근무자인 학교환경실무사도 연봉이 2131만원으로 금란교실 지도사와 1161만원의 차이가 났다.

28개 직종 중 연봉평균 총액이 2500만원 이상인 직종은 13개, 나머지는 2500만원 미만이다. 평균 연봉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의 없었다.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직종은 금란교실지도사뿐이며 2900만원대는 영양사와 학교폭력센터상담사, 2700만원대는 영어센터전담강사·평생교육사·사무실무사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직종은 일반직 7급 상당 대우로 임용됐고 자격증이나 경력 유무, 비정규직 특성상 근무시간 등에 따라 급여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가 다르므로 급여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예산 부담으로 직종 간 급여 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좁히려면 노조와 직종간 양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현수막 “불편해”

3일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도로변에서 한 행인이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길이 막히자, 현수막을 뜯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수부·해경 안일한 대응…‘우이산호’ 피해 키웠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지난 1월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해수부는 지난 1월 31일 우이산호 충돌 사고로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뒤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소 8척 이상의 방제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여수·통영·완도

해경의 방제정 3척만 출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여수해경 방제정의 경우 사건 발생 시각(오전 9시57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은 11시 30분 현장에 도착했고 통영해경 방제정은 오후 5시 30분에야 도착, 1시간여 뒤 일몰로 작업이 중단됐다. 완도해경 방제정은 밤 8시30분에야 도착, 다음 날부터 방제 작업에 참여해야 했다.

해수부는 또 여수해경 외에 인근 해경의 지원이 필요한 해양 오염 사고임에도 다음

날인 2월 1일 현장에서 유출된 기름이 통영항~오동도까지 10km이상, 폭 3km 이상으로 넓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1시간 20분 뒤에야 인근 9개 해경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해수부와 해경의 현장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 때문에 초기 해양 오염 확산을 줄이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미비점 등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가격권 알라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